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 of Hope  
RISK GUARANTE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58호

Tuesday, March 5, 2024 A

## 대법 판결로 날개 단 트럼프, '수퍼 화요일 승부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4일 '출마 자격 유지' 판결을 내렸다. 미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5일 '수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쿨웨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보고 있다. [AFP=연합시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정문을 통해 “각 주가 헌법 조항을 적용해 대선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빼라고 할 수는 없다”며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권한은 개별 주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전국 단위 선거의 공직 후보자가 일부 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또 다른 주에서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다. 대법관들은 다른 이유를 들긴 했지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을 포함해 9명

이 개별 주가 연방 공직 후보자의 출마를 제한할 수 없다는 데 만장일치 판단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커다란 승리”라며 환영했다. 그는 또 보수 성향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전했다. 트럼프는 그

리면서 “이것은 미래의 대통령을 위한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모든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트럼프의 출마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사람들을 위한 자유 언론’의 벤 클레멘츠는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의 대선 당시의 회가 그를 배제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열어 놨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5면 '출마자격'으로 이어집니다

### '트럼프 재등장' 동맹 외교 골든타임 살려라

미국 대선 투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제 정세의 새로운 기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경선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그는 분담금을 다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대해선 미국이 보호하지 않고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은 힘을 과시하면서 현상 유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다소 과장된 수사법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우방을 경시하는 기조는 벌써 외교가에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주의' 외교정책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더는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으며 미국이 동맹국들에 이용당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미국 하원에선 95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지원 패키지가 발의 묶여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으며 영토 점령을 고착화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6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은 미뤄졌다. 얼마 전 유럽연합(EU)과 이탈리아·캐나다·벨기에 정상들은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황에 모였다.

이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어딘지 어두운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장기적 소모전으로 흘러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렸다.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 총리는 옛 소련 시절에 건설한 기념물 철거를 주장했다가 러시아의 공개 수배 명단에 올랐다. 역사적 기억을 모욕하고 러시아에 적대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다. 에스토니아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다.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8면 '트럼프 재등장'으로 이어집니다

## 워싱턴 지역 AI 일자리 전국 1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보다 많아  
워싱턴 메트로지역의 인공지능(AI) 관련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부동산회사 JLL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12월 AI 관련 일자리 공고 건수가 1천개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보다 많았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최근 경기불황 예고가 잇따르면서 AI 등 IT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워싱턴지역은 연방정부 하청용역 일자리가 많아 경기 상황에 따른 고용위축이 훨씬 적기 때문에 실리곤 밸리를 품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보다 고용이 많은 것이다. 워싱턴 지역 AI 관련 일자리 절반 이상은 연방정부의 엄격한 신원조회 절차



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특히 로비업계가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AI 규제를 막기 위해 AI 전문가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로비업계 AI 일자리 공고가 300개 이상이었다. AI 관련 회사와 비영리단체, 대학, 이

의단체 등이 2023년 4/4분기에 집행한 AI 관련 로비 금액은 5억6900만달러에 이른다. 북버지니아를 중심으로 대형 IT 기업의 데이터센터 허브가 자리잡은 점도 AI 일자리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버지니아의 데이터센터 처리 능력은 4천메가와트 급으로, 세계 2위인 싱가포르보다 세배 이상 많다. AI 산업도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블룸버그 인텔

리전스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후 AI 시장은 1조3천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연방정부의 AI 관련 예산도 향후 5년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정부 2024회계연도의 AI 예산은 18억 달러다. 워싱턴 지역의 IT 일자리가 많아 인력조달이 쉽다는 점도 유리하다. 경제잡지 포브스 발표에 의하면 워싱턴DC가 IT 일자리를 얻기 좋은 곳 1위로 꼽혔다. 버지니아가 5위, 메릴랜드가 9위였다. 김옥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공 고가 재입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3/11-3/15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 '김혜경 비서' 도 호남에 꽃았다 야당, 사천 논란

권향엽 공천, 이재명 팬카페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이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호남 지역에 전략공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권 후보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현역 서동용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당 여성국장을 지낸 권 후보는 김혜경씨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했다. 이번 공천에서 여성전략특구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최고위원은 "권 후보의 경쟁력이 약해 경선을 붙여 보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적지 않아 찬반 토론이 길게 있었다"며 "최고위가 결국 권 후보를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와 공관위에 묻고 싶다. 국회의원 서동용이 하위 20%에 들어가 있으나, 재판에 연루돼 있다, 아니면 경쟁력이 낮았냐"고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여수-목포MBC가 코리아리서치인 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월 28일부

터 이틀간 무선전화면접(100%)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서 의원은 26%로 권 후보(12%)를 두 배가량 앞섰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사천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도 "오해받을 소



이성윤 권향엽

자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호 의원은 4일 "시스템 공천의 핵심 정신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하려 한다"며 당 지도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도 모자라 이제는 당 대표 부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대비하려나 보다"고 꼬집었다. 김혜경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재판이 시작됐다.

한편, 4일 발표된 민주당 전북 전주를 경선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과거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에 빚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고, 최근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은 본선에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이 지역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3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김정재 기자

## '운동권 빅매치' 마포을, 주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

(함운경·정청래)

총선 핫플레이스-서울마포을

"운동권이 다 뭐래요. 주머니 채워줄 사람을 찍어야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10년 넘게 생선가게를 운영했다는 서윤정(58)씨는 4일 "후보가 운동권인지 아닌지는 아무 관심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마포을은 상징성 있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들여 영입한 탈운동권 함운경 후보가 맞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유권자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후보들도 바닥을 누빌 때는 이념의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예비후보가 4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출근길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정청래 민주당 마포을 예비후보가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전민구 기자

'이'자도 꺼내지 않았다. 여기서 세 번 당선(17·19·21대)된 정 의원은 "20년 지역구를 내세우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날 망원시장에서 동행한 기자에게 열 곳 넘는 가게를 단골집으로 소개했다.



50대 숙웃가게 여사장은 "아내분도 모르는 의원님 숙웃 사이즈를 내가 안다"며 "10년 단골을 어떻게 안 찍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처번에 새로 산 거 고무줄이 아주 좋더라"며

맞장구치고 난 뒤 기자에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격전지(激戰地)라 주장하지만 마포을은 격전지가 아닌 격차지(隔差地)"라고 말했다.

함 후보도 지역구를 누볐다. 등에 '생선장수 함운경'이란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힌 빨간 점퍼를 입고 망원동 한사랑교회에서 주민 대표들을 만나 "저는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고 해도 거짓말로 약속은 안 한다. 현실성 있는 해결책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규선 상암6단지 입주자 대표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낙심한 주민들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게 4년 전이다. 꼭 성과를 내 달라"고 부탁했다.

함 후보(64년생)는 정 의원(65년생)의 운동권 선배다. 학생운동 후 고향인 전북 군산에 내려가 수산물 소매업을 하며 다섯 차례 낙선한 '중고 신인'이

다. 그래서인지 이날 함 후보의 선거 운동은 꽤 자연스러웠다. 출신지가 적힌 그의 명함을 전북 김제 출신 시민이 받아 들였고, 함 후보는 "김제 어디셔유. 함씨는 청하에 많으니"라고 손을 맞잡았다.

마포을은 17대 총선 이후 한 차례(18대)를 제외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대선 때 양당 득표를 격차가 2%대까지 좁혀졌고, 그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시장(53.84%)이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11.46%p 차이로 따돌렸다. 하지만 당시 함께 치른 마포구청장 선거의 양당 득표율(민주당 유동균 47.89%, 국민의힘 박강수 45.64%)을 고려하면, 마포을은 마포 내에서도 여전히 야성(野性)이 강한 편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 갑 우세로 마포을 열세를 극복하고 당선됐다. 심세롬·강보현·전민구 기자

## 윤 대통령 "대구를 마 바까보겠습니다... 신공항 2030년 개항"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대를 일일이 거론하며 "전통의 명문 의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립 의대와 지역의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의대 이슈가 다뤄졌다. 패널로 참석한 흥원화 경북대 총장이 "의대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대구를 마 한 번 바까보겠습니다"라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도 대구 인공 동 국수 공장도 기업을 처음 일으켰고, 우리 정신을 혁명적으로 바꾼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가까운 청도를 발원지로 대구·경북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대구를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R&D(연구 및 개발)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놴다. 현일훈 기자

**워싱턴 날씨 (°F)**

6일(수) 57~51	9일(토) 59~48
7일(목) 66~46	10일(일) 56~40
8일(금) 59~46	11일(월) 54~40

3월 5일(화) 61~5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정월대보름 잔치 및 제 105주년 3·1절 행사 후원 감사의 말씀 결산 보고

감사 최희대 *Choi*

수입 내용	금액	지출 내용	금액
1. 장세희 (사임당소사이어티 총회장)	\$600	1. 언론행사 광고	\$520
2. 무명	\$500	2. 현수막	\$100
3. 박미숙 (한미여성재단 이사장)	\$200	3. 정월대보름 떡국 식사	\$350
4. 윤지희 (전 체육 회장)	\$100	4. 노인APT 모범 상장 및 트로피 제작	\$150
5. 김용돈 목사 (노인회 담당 목사)	\$50	5. 3·1절 행사 장수 상장 및 트로피 제작	\$200
6. 강수자 (노인회 이사)	\$100	6. 영남향우회 대보름 잔치 후원	\$250
		7. 3·1절 행사후 임원10명 식사	\$350
		8. 행사 결산 보고 언론	\$350
<b>수입 계</b>	<b>\$1,550</b>	<b>지출 계</b>	<b>\$1,920</b>

수입 \$1,550 - 지출 \$1,920 = -\$370

- ▶ 근하신년 행사 (2024년 1월 26일 결산보고) 잔액: \$344 사용
- ▶ 정월대보름잔치 및 3·1절행사 결산보고: 부족금액 \$370-잔액 \$344=-\$26 (회장 지불)

##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 버지니아 한인회 (VSOK) 회장 우태창

상기 광고는 본지의 광고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 “트럼프-영킨 악연 이어지나”

### 트럼프 유세 불참한 영킨 주지사 ‘비난 쇄도’ “2020년 대선 이래 한번도 함께하지 않아”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주말 버지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경선 유세에 불참해 구설에 올랐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양원의회 다수당이라 영킨 주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 몇 개 정도를 구결해서 얻어나야 할 입장이라, 민주당 눈치 때문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세에는 짐 길모어 전 주지사 등 40여명의 버지니아 유력 공화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나 영킨 주지사는 보이지 않았다. 영킨 주지사는 이미 약속된 가족 일정 때문에 유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영킨 주지사 측은 또한 트럼프 전 대



도널드 트럼프 글렌 영킨

통령과 가까이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킨 주지사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인물로, 극우 성향을 대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고의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영킨 주지사를 위한 버지니아 유세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정작 영킨 주지사는 유세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인물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도 한장 없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지니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두자릿수 격차로 패배해, 주지사 선거에 오지려 해가 될 것을 우려한 탓이다.

주인공도 없는 선거 유세를 대신 치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킨 주지사에게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MAGA) 캠페인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으나, 영킨 주지사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침내 2022년 영킨 주지사를 향해 “내가 돕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는 은혜를 모르는 인물”이라고 격격한 바 있다. 김욱재 기자

만나봤습니다

전 불교 중앙 박물관장 탄탄 스님

## “소중한 인연 돌아보려 워싱턴 찾아”

조계종 불교 중앙 박물관장, 연예인 전법단장 등을 역임한 탄탄 스님이 김용하 몽고메리 한인회장과 함께 본보를 찾았다.

탄탄 스님은 “10여년 전 워싱턴에서 살아가며 인연 맺은 지인들과 반가운 만남을 갖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회장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찾는 막역한 사이”라며 스님을 소개했다. 이들은 “종교를 초월해 사람과 사람으로서 맺은 인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탄 스님은 이번 방문 동안 동포들이 마련한 ‘삼일절 기념식’ 등에 참석하며 “한인사회의 힘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예전에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제 ‘시니어’로 활동하는 데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꼈다”고도 이야기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탄탄 스님(왼쪽)과 김용하 회장

받았던 한인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면서 “워싱턴 지역에 ‘불교 소사이어티’를 조직해 종교간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탄탄 스님은 ‘시인’이자 ‘작가’로 다수의 저서를 발간 했으며, 현재 용인대학교 동양무예학과 객원교수, 동국대 대학원 객원교수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 재외투표소 VA·MD 두 곳 설치

VA 27~4월1일, MD 29~31일까지  
버지니아 투표소, 서틀버스도 운영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주미국대사관의 재외선거 관할지역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에 각각 1개씩 총 2개 투표소가 설치된다.

4일 주미국대사관 재외선거관실(강호성 선거관)에 따르면 버지니아 재외투표소는 코리안커뮤니티센터(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에 마련되며, 운영기간은 오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 6일간이다.

메릴랜드에 추가로 설치되는 재외투표소는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에 마련되며,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두 투표소의 운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후 5시 이전에 도착한 선거인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버지니아에 설치되는 재외투



표소와 “East Falls Church(Silver, Orange 노선)”지하철역을 오가는 서틀버스를 재외투표기간 중 주말인 30, 31일 양일간 운행한다. 서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 시 정각에 East Falls Church역의 ‘Kiss & Ride’지점에서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재외투표소로 하루 총 8회 출발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매 시 30분에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재외투표소에서 East Falls Church역으로 하루 총 8회 출발한다. 다만, 서틀

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은 서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며,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

강호성 재외선거관은 “투표소들의 운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며, 투표참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유권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서틀버스도 운행하니 많은 분들께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

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되는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기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지점 통폐합

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이 지점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뱅크오브호프는 1차로 월셔/웨스턴, 메이플, 헌팅턴파크 등 남가주 지점 3곳과 워싱턴 시카고 글렌뷰 지점의 문을 닫았다. 북가주 오클랜드와 텍사스 달러스 포트워스 지점의 마지막 영업일은 3월 29일로 예정됐다.

지점 통폐합이 완료되면 뱅크오브호프의 지점 수는 54곳에서 48곳으로 줄어든다.

한미은행도 가주 LA패션디스트릭트점과 텍사스주 휴스턴/스프링 지점과 플레이노점을 5월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점 정리가 끝난 6월부터는 지점 수가 35개

**Bank of Hope**

에서 32개로 감소한다.

양측은 지점 운영 효율성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지점 통폐합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지점의 인력은 인근 지점으로 모두 흡수될 예정이어서 감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폐점 예정인 지점은 인근 다른 지점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면서 “지점 통폐합은 경비 절감보다는 경영 효율성 증대 목적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재선 기자

## LA 독립문서 첫 3·1절 기념식 열려



리들리 3.1절 기념식 참석자들이 리들리 독립문 앞에서 다같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LA 한인회 제공]

미주 지역 항일 운동의 근원지인 중가주 리들리 독립문에서 LA 한인들이 처음으로 삼일절(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리들리 지역과 LA지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 생중계를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1일 LA 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를 비롯한 7개 한인 단체들은 리들리 지역 독립문과 한인회관에서 동시에 삼일절 기념식을 진행했다.

먼저 리들리 지역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LA한인회, 흥사단, 광복회,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아나타 베타코트 리들리 시장, 마리벨 레이노사 다뉴바 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리들리에서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안 회장은 “이번 기념식은 단순히

우리의 역사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데 이 기회에 차세대에게 한국 독립의 역사와 정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환 LA 총영사는 리들리로 가지 않고 LA한인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김 총영사는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공동의 이익과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협력의 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다”며 “내년이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인 만큼 신뢰와 협력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차관재 박사는 리들리 지역 독립문과 기념비가 건립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날 차 박사는 “리들리에서 시작된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가 LA 한인사회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LA지역 한인들이 이곳을 기억하고 찾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레이노사 다뉴바 시장은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안 회장 역시 리들리시와 다뉴바시정부 관계자들에게 LA한인회 명의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리들리 지역 기념식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5명도 참석했다. 특히 독립운동가 김태연 선생의 증손녀 김용혜 씨를 비롯한 손병석 선생의 손자 손재호씨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또, 박관준 선생의 외손자 박영남씨와 조창용 선생의 외손자 신영구씨, 김순배 선생의 외손자 김흥민씨가 함께 만세삼창을 하며 기념식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김경준 기자



LAPD 첫 한인국장 취임 LA경찰국(LAPD) 한인 국장 시대가 열렸다. LAPD 155년 역사에서 한인 은 물론 아시아계 최초로 국장직에 오른 도미니크 최(53) 임시국장(제58대 LAPD 경찰국장)으로 1일 공식 취임했다. 이날 LAPD 본부 건물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을 비롯해 존 이, 팀 맥오스커 등 시의원들 등 많은 주류 인사들이 참석해 첫 한인 경찰 수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부친 최요셉씨가 최 국장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김상진 기자

### CVS·월그린스 ‘먹는 낙태약’ 판매 개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스에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먹는 낙태약 판매를 시작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일 대형 약국 체인 CVS와 월그린스가 가주

를 포함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두 업체 모두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지침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을 공급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 FDA는 지난해 소매 약국에서도 이 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장연화 기자

### 부도수표 돌려막기 한인 일당 4명 실행

연방법원이 부도수표 돌려막기 수법인 일명 ‘버스트 아웃(bust out)’,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사기 행각을 벌였던 한인에게 실행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LA 거주 장모(60)씨가 체크 카이팅 은행사기 혐의로 징역 1년 9

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국적자인 장씨 등 한인 4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은행에 총 27만3800달러(미수금 포함 시 46만6318달러)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장씨 등 사기 용의자들은 한국 여권에 가짜 이름과 사진을 합성해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였다. 체크 카이팅은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3일이 걸리는 사이, 은행 측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김형재 기자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한국 중견기업들 동참... 대기업은 뭐하나

삼익약기·동진아메리카·시티원 재단측 "한국 대기업 참여 기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중견기업이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자선사업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한인단체들은 최근 한국 기업이 한인 사회 환원사업에 긍정적이라며, 삼성과 LG 등 대기업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가주 첫 한인 커뮤니티 재단인 미주한인재단(KAF·이사장 강창근, 이하 한인재단)은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 클럽에서 '파운더스 모임'을 열고, 현재까지 10만 달러 이상 기부자가 50여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인재단 측은 올해 안에 1차 목표인 '파운더스 서클(Founders Circle)' 멤버 100명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인재단은 한인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자선기금을 신뢰성있게 관리하는 남가주 한인사회 첫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다.

지난 2018년 설립돼 2023년 35만 달



강찬근 이사장



김종섭 회장



차준영 회장



에릭송 지사장

리 기부 등 지난 3년 동안 20여 비영리 단체에 총 116만 달러 그랜트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파운더스 모임에서 강창근 이사장은 한국 중견기업인 ▶삼익약기(회장 김종섭)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기업 동진 아메리카(지사장 에릭송) ▶부동산 개발 및 행사 시티원(회장 차준영)이 각각 1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강창근 이사장은 "남가주 지역에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처럼 한인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재단이 활동하고 많은 분이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며 "각 기업 측에서 취지에 흔쾌히 공

감하고 기부금을 약정했다"고 말했다. 한인재단에 따르면 기부금 약정 기업 모두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한인 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한다.

강 이사장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한인사회와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이들 기업이 한인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협조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재단이 활발히 움직이고 신뢰를 쌓으면, 한국 기업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단체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업종별로 한인사회 환원에 온도차를 보

인다고 한다. 자동차와 항공사 등 한인 고객층이 두터울 경우에만 커뮤니티 환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미국사회 홍보와 환원에만 집중하는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A한인상공회의소 김봉현 회장은 "한인사회가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을 응원하고 제품이 많이 사지만, 기업은 아직 한인사회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한인사회 후원 요청 등 나름 많은 공을 들이고 접근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온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인사회 존재와 중요성을 한국 기업에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커뮤니티 행사 때 기업 관계자를 초청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재단은 한인사회 발전사업에 동참할 후원자를 찾고 있다.

▶문의: info@koreanamericanfoundation.org

김형재 기자

## 코웨이 노조 설립 최종개표 또 연기

코웨이 USA 노동조합 설립 여부가 또 다시 미뤄졌다.

연방정부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1일 코웨이 USA 노조 설립안에 대한 개표를 진행했다. NLRB측은 "현재까지 총 개표 결과를 보면 노조 설립 반대는 68표, 설립 찬성은 63표"라고 밝혔다.

개표 상황만 놓고 보면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직원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 설립 반대표가 더 많지만, 개표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양측이 투표지를 두고 각각 이의를 제기, 13표에 대한 개표가 현재 보류 중이다. 이번 개표는 두 번째 진행이었다. 지난해 12월 6일 이미 첫 번째 개표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1차 개표에서는 노조 설립 반대(35표), 찬성(28표) 등 총 63표가 개표됐다.

▶1면 '출마자격'에서 이어집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0 대선 사기' 주장을 퍼지자지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게 한 것은 반란 가담 행위"라며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미 헌법 14조 3항을 어겼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헌법 14조 3항이 규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수퍼 화요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출마 자격 유지 결정을 내리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선 가도 앞에 놓인 장애물 하나가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 대법원 판결은 비슷한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주(州)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콜로라도를 비롯해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 트럼프에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한인 연방 하원의원 모금액 경쟁자 압도, 당선 전망 높여

스틸 450만불·영 김 400만불 앤디 김·스트릭랜드도 호조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의 선거 모금액이 경쟁 후보 또는 다른 지역구를 크게 앞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선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지난주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 현역인 미셸 스틸(45지구)과 영 김(40지구) 의원은 지난달 14일까지 총 450만 달러와 400만 달러를 각각 모금해 가주 내 모금액 4, 5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액수로는 샌호세의 로키스 카나(66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의 낸시 펠로시(502만 달러), LA의 길 시스네로(464만 달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주 내 52개 연방 하원 지역구 중



미셸 스틸



영 김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재선 의원들의 모금액으로 보기에 두 한인 의원들의 모금액은 상당히 큰 것이다.

3선에 도전 중인 두 의원은 경쟁 후보들이 같은 기간 모은 40~50만 달러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모금을 해낸 것이다. 스틸 의원의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들은 30~60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의 경우엔 소방관 출

신의 민주당 경쟁 후보가 100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역과 유력 경쟁 후보들이 100만 달러 이상을 모은 지역구가 몇 곳이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보통 50~100만 달러를 모으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두 의원 선거 캠프에 큰 규모의 모금이 가능한 것은 두 의원들이 가진 중량감, 10~20년에 달하는 지역 내

네트워킹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가주 주요 선거에서 컨설팅을 제공해온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고액 모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두 의원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데다 하원 내 양당의 해당 지역구 개발전이 뜨거워지면서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저지 출신으로 연방 상원에 도전 중인 앤디 김 하원의원은 지난해 말까지 총 389만여 달러를 모금해 현역인 밥 매넨데스 의원(1080만 달러) 다음에 랭크됐다. 한편 워싱턴주 매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10지구)은 지난 연말까지 91만 달러를 모았다. 그를 추격하고 있는 공화당 니랩 세스 후보는 아직 17000여 달러를 모은데 그쳤다. 워싱턴주 예선은 8월로 예정되어 있다.

최인성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절인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C HEDYAN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정점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메타 AI도 이미지 생성 오류

미국의 역사적 인물을 유색인종으로 바꿔 그리는 오류로 인해 이미지 생성 기능이 중단된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니에 이어 메타의 이미지 생성기 '이매진 위드 메타 AI'(이하 '이매진')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확인됐다고 미국 매체 약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삽입된 메타의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인 이매진은 여러 명의 교황을 그려달라는 요청에 흑인 교황 이미지를 생성했다.

이매진이 생성한 미국 건국자의 이미지도 유색인종이 여러 포함됐으며, '미국 식민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그려달라'는 요청에는 아시아계 여성들의 이미지를 내놨다. 이매진은 '나치'나 '노예' 등의 단어가 포함된 요청에는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았다.

메타 측은 이에 관한 문의에 즉각 답



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약시오스는 지난 1일 전했다.

이 같은 오류는 빅테크 업체들이 생성형 AI의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종·성별 다양성에 대한 장치를 과하게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구글의 AI 모델 제미니도 미국 건국자나 아인슈타인 등 역사적 인물을 유색인종으로 묘사하고, 독일 나치군을 아시아인종으로 생성하는 등의 오류가 발견돼 출시 20여일 만에 이미지 생성 기능이 중단됐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편견을 드러냈다"며 "우리 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 텍사스 '불법이민자 체포법' 대법원으로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4일 CNN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말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7일 동안 유예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텍사스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하면서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주와 바이든 정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을 심리한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의 주법이 연방 지침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방법과 권

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는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항소법원이 결정을 유예한 시한 내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비슷한 사례로 2012년 애리조나주가 자체적인 불법이민 단속법을 시행하려 하자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에는 연방 정부가 승소하며 일단락됐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국경·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민 정책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한층 더 주목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텍사스 등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 폭설 3일 캘리포니아주 소도시 트라키에서 미국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 직원들이 철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에는 며칠째 폭설이 계속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러시아, 서방 제재 비웃으며 반도체·드론 공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 중앙아시아 등을 경유한 '이중용도 물품'의 러시아 반입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중용도 물품은 컴퓨터용 반도체 칩과 라우터, 볼베어링 등 민간용으로 개발·제조됐어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큰 상품을 일컫는 용어다.

3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비영리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작년 1~7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간 이중용도 물품이 최소 6천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교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업적으로 공개된 정보만으로 추산한 결과인 만큼 실제 이뤄진 거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C4ADS는 분석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약 7천6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이 닿아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위치해 역시 중계무역 거점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이중용도 물품 반입 경로로 거론되지만, 유독 이 두 국가가 주목받는 이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 검문소 앞에 늘어선 화물차들

[EPA 연합뉴스]

유는 제재 가능성이 큰 '민감' 품목들 다루는 경우가 잦아서다.

작년에만 45억 달러어치의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팔아치운 중국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위험 품목, 특히 서방 기업이 중국 등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일종의 '세탁처'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C4ADS의 나탈리 심슨 애널리스트는 "중국 기업 자체 제품의 경우(중·러) 국경을 넘는 직접적 경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방 제품을 환적하는 이들은 종종(추적용) 더욱 어렵게 할 방법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작년 6월에는 IBM의 중국 자회사가 생산한 3천700 달러 상당의 컴퓨터용 부품이 키르기스스탄 내 무역업자를 거쳐 러시아에 넘어갔다.

비슷한 시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비샤이 인터테크놀러지의 중국 내 공

장에서 생산한 트랜지스터도 카자흐 기업을 경유해 러시아 전자제품 도매상에 팔렸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 반도체가 러시아군 정찰 드론(무인기)과 군사용 위성통신 장비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에 관여한 카자흐 기업 엘렘 그룹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등 다른 미국 기업들에서도 대량의 상품을 구매해 작년 3월부터 8월 사이에만 115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러시아에 넘겼다.

중국 세관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두 나라에 13억 달러 규모의 이중용도 품목 제품을 수출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64% 급증한 액수이며, 이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로 보내졌다고 C4ADS는 분석했다.

### “미국기밀유출 병사, 징역16년 합의”

미국의 국방 기밀을 온라인에 올려 전 세계를 뒤흔든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사진)일병이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검찰과 16년형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침이다. 앞서 테세이라는 지난해 4월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2개월간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2021년 기밀취급 인

가를 받은 그는 기밀문서 내용을 받아 적어 채팅방에 유출했고, 기밀 표시가 선명한 문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유출 정보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상황과 탄약 재고 등 민감한 군 기밀정보도 다수 포함됐다.

테세이라는 기밀 유출 사건은 2010년 각종 문서와 영상 및 외교 전문 등 70만여 건이 유출된 위키리크스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미국 내 보안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 VA/MD/DC 한인들을 위한

##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http://www.mymatchingpoint.com)



# Hair **Z**one

##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 Seniors (Up to 65)
- Kids (Under 15)
-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Ellen**

**Business Hours**  
TUE - SAT 10AM - 6PM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2PM - 5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Apple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Hair **Z**one**



Android

# 미 대선 정국 돌입 직전까지가 “한미동맹 골든타임”

▶1면 '트럼프 재등장'에서 이어집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구조가 균열의 틈을 보이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이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연합의 축이 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보수 언론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그는 공공연하게 트럼프 진영을 옹호하며 미국의 분열을 유도했다. 불간섭주의와 실리주의를 표방하는 제3세계 국가들은 서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서방의 이중잣대를 비난한다.

2024년의 국제 정세는 불확실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무질서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약해졌고 권위주의의 도전은 거세지고 있다.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쪽을 제재할 의지와 힘을 잃어버린다면 국제질서는 비대칭적인 다극화로 이행할 수도 있다. 다자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블록화로 재편되는 걸 막을 수 없다.

동맹 외교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집단방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언사가 나오자 흔들린다. 언제든 미군 철수 검토 카드를 받을지 모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트럼프주의가 득세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동맹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캄프 데이비드 협정을 비롯한 동맹 우선의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할까.

한국·미국·일본의 협력 수준을 낮추고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근시안적 오류에 가깝다. 오히려 동맹에서 후퇴하면 장기적으로 한국 외교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위험이 더 크다. 전선 국가인 한국은 실용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원칙이 아직 절실히 필요하다. 핵 역지를 포함한 안보의 핵심 이익이 존재하는 한 이론적인 중립의 옵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에선 동맹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는 중국·러시아·북한 및 제3세계와의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대응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유세하고 있다.

[로이테]

서방 빈틈을 파고드는 중국·러시아... 개별 국가 차원 대응 어려워  
한국, 안보·경제적 이익 담보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링 힘써야  
올여름 워싱턴 나토 정상회담은 한국 동맹 자산 공고화 분수령  
동맹과 비동맹 양자택일 함정 빠지지 말아야... 플러스 알파 전략 필요

문제지 동맹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양자택일로 진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동맹외교는 아직 완전한 궤도에 오른 게 아니다.

한·미 동맹의 신뢰도는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비롯해 지난 2년간 많이 회복했다.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한·미·일 협력 구도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양이나 유럽 우방국들과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 새로운 연계를 용이하게 구축할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기 직전인 올해 상반기가 한국으로선 동맹 자산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한·미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관계와 함께 나토+아시아·태평양 4개국(한국·일본·호주·

뉴질랜드) 등의 파트너십을 포괄한다.

동맹 체제의 공고화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중요하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 질서와 규범 형성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 체제가 들어선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 변화에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우방과의 연계를 다시 수립할 수 있는 복원점이 될 것이다. 올여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은 이런 동맹 체제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동맹 외교의 공고화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첫째, 한국이 속할 수 있는 '리그'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국제 질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어떤 집단과 함께 하

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은 아직 주요 7개국(G7)에 정식으로 가입한 게 아니다. 한국이 속한 주요 20개국(G20) 회의는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에선 유럽처럼 지역 차원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는 권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되돌아보면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리그가 부족하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다. 안보와 경제의 차원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틈을 만들어 참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소다자주의를 포함한 외교적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동맹에 공고히 참여하는 동시에 원조와 지원에 대한 보상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맹도 거래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혜택을 받는 수직적 동맹

관계만 볼 게 아니다. 수평적 차원의 파트너십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일본·호주·영국·독일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몸집과 위상이 커졌다. 그만큼 국제 사회의 요구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학생에 비유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숙제는 늘어나고 시험은 어려워지는 것과 같다. 한반도를 벗어난 국제 문제에서도 이제는 내향적 거부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도 필요한 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대신 한국이 원하는 보상과 거래 조건을 국익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여기엔 군사·안보뿐 아니라 산업·기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동맹 같은 요소도 세밀하게 포함해야 한다.

셋째,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포함한 신흥시장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동맹 체제를 약화하면서 균형을 맞추자는 게 아니다. 범 동맹 체제의 공고화를 기반으로 협상력과 흡입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아쉬웠던 결과를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축적한 네트워크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물론 모든 국가와 동시 관계를 개선하는 건 물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국가군 선정을 선행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동맹 외교 논의를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병행해야 한다. 최고 지도자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 세밀한 부분은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과 다각화, 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정의하는 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기 어려운 상대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하게 엮이는 안보·경제적 이해관계를 추려 내고 새로운 규범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말!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버스투어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윈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 4월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22~5/5 \$4,390+항공

## 4월 정통 동유럽

8박9일  
4/22~4/30 \$3,290+항공

## 4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6박7일  
4/29~5/5 \$2,890+항공

## 4월 정통 서유럽

10박11일  
4/22~5/5 \$3,490+항공

## 5월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5/21~6/2 \$3,890+항공

## 5월 그리스 & 터키

10박11일  
5/6~5/16 \$2,890+항공

## 6월 아이슬란드

8박9일  
6/4~6/12 \$5,690+항공

## 6월 스위스 알프스

8박9일  
6/18~6/26 \$3,990+항공

### 윈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레나고 703.663.8534

##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7~5/17

##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28~7/8

### 2024 크루즈

## 알래스카

8/30~9/6 7박 8일  
\$1990 (인사이드+항공포함)

## 뉴잉글랜드

10/17~10/26 9박 10일  
\$1190 (인사이드)

## 남부 카리브해

12/7~12/19 12박 13일  
\$1390 (인사이드)

## 6월 캐나다 록키

5박6일  
6/30~7/5 \$2,290 (항공포함)

## 8월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8/9~8/19 \$5,290+항공

## 8월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8/15~8/21 \$2,990 (항공포함)

## 9월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9/17~9/30 \$4,390+항공

## 9월 그리스 & 터키

10박11일  
9/25~10/5 \$2,890+항공

## 10월 독일 일주

13박14일  
10/03~10/16 \$5,690+항공

## 10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10/08~10/18 \$3,190+항공

## 10월 프랑스 일주

13박14일  
10/17~10/30 \$5,690+항공

**엘리베이터 스페셜**

여행 3개월 전에 \$3,000 이상의 여행패키지를 예약하시는 고객분들께 \$100 off (할인은 출발일 기준이며 다파적 고객만 적용됩니다)

###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3/13~3/19	남프랑스 6박7일 \$2890+항공
3/16~3/28	남미 일주 1차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190+항공
3/16~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2990+항공
3/22~3/28	페루 일주 6박7일 \$2890+항공
3/25~3/31	봄방학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3/29~4/10	남미 일주 2차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190+항공
4/16~4/26	고공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4/22~5/05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4/24~5/05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 & 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3990+항공
6/18~6/28	고공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5~7/0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 (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 (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990 (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 (항공포함), 발코니 \$2590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9/17~9/27	고공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9/17~9/30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10/15~10/25	고공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 & 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 (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토) 9박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공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4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13박14일 (사내선) \$5190+항공
11/12~11/20	이스라엘 & 요르단 10박11일 \$31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 (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 한국방문의 모든것!

1차 4/16 ~ 4/26      4차 10/15 ~ 10/25  
2차 6/18 ~ 6/28      5차 10/22 ~ 11/1  
3차 9/17 ~ 9/27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 / 외도+해금강유람선 / 경동진 레일바이크 / 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한옥마을 리한호텔 / 여수 소노캄 / 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 / 경주 라한셀렉트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10박 11일 \$2990+항공**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경동진/강릉/속초/제주

**TMCI**

##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토요 특선 \$95**

**롱우드 가든**  
3월 16일

**필라델피아**  
4월 6일

**네슈럴 브릿지 +수목원** 5월 4일

**워싱턴 벚꽃길**  
도보여행 \$89 (4인 이상 수시 출발)

**상만의 벚꽃**  
런치 크루즈 \$189  
3/22, 3/29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5월 출발  
나이아가라/토론토/천성  
몬트리올/퀘벡/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미동부 베스트셀러** 5월 출발  
**뉴욕 브루클린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핵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 5월 출발  
**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미서부 일주**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캐나다 록키** 4박5일 \$1090+항공

**옐로스톤** 3박4일 \$890+항공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다낭** \$499+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폴** \$790+항공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바이든·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한국엔 도전이자 기회”

JoongAng | CSIS FORUM 2024

미라 램-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의 조치(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중간(잠정)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 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고위 당국자가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램-후퍼 선임보좌관은 이날 ‘북한위기의 2024’를 주제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24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힌 뒤 “그러나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수석 부소장 겸 한국석좌와의 영상 특별대담에서도 그는 “특히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 고조가 오히려 이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더 큰 폭의(greater), 더 정례화된 소통을 추구해야 하며, 안정화를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축사를 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3국 가치연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찬사에서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평화와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적 대결의 길로 들어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에 퇴행적으로 나올수록 더 지혜롭고 원숙하게 대응해야 하며, 한목소리로 평화통일과 비핵평화를 주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트 포틴저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긴장 조성을 통해 4월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고, 11월 대선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환영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한 G8이나 호주까지 포함하는 G9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The JoongAng | CSIS FORUM 2024

중앙일보-CSIS 포럼 주요 참석자

- 

존 햄리  
CSIS 소장 겸 CEO
- 

미라 램-후퍼  
미 백악관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 

매트 포틴저  
전 미 백악관 NSC 부보좌관
-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
- 

앨리스 후커  
전 미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 

한덕수  
국무총리
-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 

박명림  
연세대 교수,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

## 한·미 동맹과 2024 미 대선

### “바이든 재선 땀 기존 안보협약의 진화” “트럼프 되면 윤 대통령 적절할 상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었던 지도자 중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돋보였는데 (만약 다시 집권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상대 정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4일 중앙일보-CSIS 포럼 1세션(한·미 동맹과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이같이 전망한 뒤 “두 정상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현재의 지정학적 인 상황으로 봤을 때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제도화된 동맹’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존 햄리 소장=차기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것이며 이는 한국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하는데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상·하원의 주도 세력이 다른 미 의회의 권한은 약화되고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각을 구성할 인재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의 강성파가 백악관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한·미 동맹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그 진폭이 커질 수 있다. 바이든이 재선하면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구체화하는 등 기존 논의를 진화시킬 것이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근접한 수준까지 핵무기에 대한 전략 기획·실행 능력을 격상할지가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공함이 잘 맞을 수 있다. 동맹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새 정부에 얼마나 포진하는지에 따라 조정 여지는 있다.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트럼프가 과거 관심을 나타냈던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의 경우 현재의 협정(2025년 만료)을 대선 전에 재협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관여하는 등 제도적인 맥락에서 관리했다. 트럼프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와 방산, 우주 등 분야에선 한·미가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등 역내 안정이 유지됐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강력한 탄력성과 내구성을 보여 왔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또 포괄적인 동맹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역할 분담’이다. 한국의 능력이 올라갈수록 미국의 기대 수준도 상승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더 커질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북·중·러 협력이 강화될수록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1954년 상호방위조약 발효 이후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한·미 공동의 필요에 의해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 지역에서 ‘작은 나토’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 홍석현 “김정은, 중·러 밀착은 위험한 도박... 쿠바의 선택 성찰해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4일 개회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리해진 국제정세를 과신해 중·러에 밀착하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우려했다. “핵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두 개의 전쟁과 대선을 감당하느라 여력이 없는 허점을 노릴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다. 이어 “중국이 원조

를 줄이거나 중단하면 북한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원조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진정되면 중단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홍 회장은 또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도 인민은 잘 먹고 잘살 수 없다. 세습 독재정권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형제국 쿠바가 한국과 수교한 것을 거론하

며 “북한은 쿠바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대만해협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한반도에 초래할 위기 상황도 짚었다. “대만해협의 위기는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면서다. 이어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고 최초의 AI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계 도처에서 전쟁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리는 칸트가 ‘전쟁은 악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인을 많이 만든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미·일은 북·중·러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무 보고, 절세 전략, 세무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무 보고

- 50개 주 개인 세무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무 탕감 신청

사업체 세무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무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북핵 문제, 미·중·러 대립 아닌 협력 과제로 만들어야”



중앙일보-CSIS 포럼이 열린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성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존 헐리 CSIS 소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박명림 연세대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 북·중·러 밀착과 국제사회 대응

“러 군사기술 북에 못 가게 경고해야”  
“북도발 못하도록 중국 개입시켜야”

‘북한·중국·러시아 밀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세션에서는 전례 없는 북·러 밀착 구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정부가 더욱 분명히 러시아에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윤병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신경

쓰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내 목소리가 하원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북한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진단했다.

◆앨리슨 후커 전 선임보좌관=북·러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져 북한은 지원 받은 식량, 연료로 생존의 활로를 찾는 게 가능해졌다. 군사적으로도 위협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북·중·러 관계는 미국과 다른 우호

국의 협력에 맞서 편이상 만들어진 경향이 크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 더 기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신정승 전 주중국 대사=북·러 간 군사적 협력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이 식량·에너지원을 각각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력에 맞서는 데 러시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북

한이 엉뚱한 도발을 못 하도록 중국을 개입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북한이 북·미 관계에 관심이 떨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러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자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어쩌면 질투심으로도 읽힌다. 푸틴과 김정은이 가까워지면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남·대미 대화가 두절된 데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상황 역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

부는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좌시하지 않고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러시아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미국 등 동맹을 활용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핵 문제는 국제 비확산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저해하므로 미·중·러의 공동 이해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가급적 미·중 및 미·러 간 대립 구도로부터 분리해 내고, 미·중·러가 협력할 사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미·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과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 “공급망 등 관련, 한·미·일 분명한 협력 로드맵 필요”

## 캠프 데이비드 회담 후 경제안보

“정부와 기업 더 긴밀히 소통해야”  
“중국, 글로벌 경제와 단절 우려”

“국가의 경제안보 전략에 기업의 이해관계가 녹아들게 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은 서로 묶여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양측의 교집합은 분명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의 세 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미·일 협력이 갈수록 밀도를 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층위에서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션의 좌장을 맡은 박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건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에 공통적인 화두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교수=군사동맹은 각국 군의 이익이 국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민간 기업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따르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더 소통해야 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안보와 한·미·일 협력은 긴요해진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반도체 등 분야의 현장에선 기업 간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기업 간 다국적 협력이란 보다 복잡한 문제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 1주년을 앞두고 3국 협력의 분명한 로드맵을 수립할 때다.

◆조너선 쉥 윌스트리트저널 중국지국장=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디커플링(decoupling)’과 ‘디리스크링(de-risking)’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개념이다. 중국은 둘 다 탐탁지 않아 한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자신들만 단절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자립은 지키고자 한다. 중국 기업의 특징이자 강점은 정부와 밀착해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취했던 2019년은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분수령이 됐다. 당시 기업들은 부품 하나만 없어도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에 수동성을 탈피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미·일 협력도 강화됐다. 이제 관건은 정부와 기업의 층위에서 각각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국가와 기업의 이익 간 교집합을 찾아 긴밀히 연계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별취재팀=유지혜·김상진·정영교 이근평·박현주 기자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 왜 비키 리 부동산인가? 왜 막착같은 부동산인가?

- 17년 경력의 주택 관리 능력과 16년 연속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탑에이전트,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갖춘 브로커, 비키 리입니다.
-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법,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혹은 각 카운티 별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펫 디파짓: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Non refundable pet deposit 은 불법입니다.  
예) 브로커가 아닌 에이전트가 임대주택관리 해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예) 디파짓은 2개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스모크디텍터: 각방마다 각 층마다, 지하실과 주방 이산화탄소 & 스모크디텍터 설치
- 고객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며 계약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의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비키 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 매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 정부 “전공의, 전문의 1년 늦어질 것” 의협 “법적 보호 추진”

복지부 “전공의 처분은 불가역적” 오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의대 증원 신청은 2000명 넘길 듯 충북대 49명→250명 5배로 신청 의대 29곳 집단 휴학에 개강 연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 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4일 착수했다.

의료계는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는 순간, 정부와 크게 싸우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7000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며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7000여 명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지난달 29일 기준 7854명)들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각 병원에 직원을 보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르면 5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10여 일간 소명 기간을 준 뒤 정상 참

작의 이유가 없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등 시점을 명시한 처분통지서를 발송한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 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처분은 행정력과 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등 5명을 고발 조치했는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이어질 경우 이론적으로는 ‘무더기 면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면허는 취소 3년 후 심의 등을 거쳐 재취득이 가능하지



4월 대구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만,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전공의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소통 부재를 이유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마감 시한인 이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는 정부의 방침

인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들이 증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49명)는 정원을 현재보다 5배 이상 많은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가천대(40명)도 최대 200명까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대구가톨릭대(40명→80명)·제주대(40명→100명)·울산대(40명→150명)·아주대(40명→110~150명)·동아대(49명→100명)·을지대(40명→100명) 등은 정원을 2~3배로, 정원이 많은 대학 중에선 경북대(110명→250명)·경상국립대(76명→200명)가 정원을 200명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까지 접수된 최종 인원은 5일 발표 예정이다.

이날 전국 대학이 개강했지만, 의대 40곳 중 29곳은 학생들의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로 개강을 연기했다.

정상 개강한 대학은 연세대, 연세대 미라캠퍼스, 인하대, 을지대 4곳뿐이었다. 서울대·아주대 등 7곳은 “예민한 사항”이라며 학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황수연·서지원·이후연·이찬규 기자

## 박단 “정부, 전공의 지원 구체안 없이 믿어달란 말뿐”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만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개선을) 하면 되지 않나.”

박단(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시작서를 냈고, 정부의 복귀 데드라인(지난달 29일)을 넘긴 뒤에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가 수련 환경 개선을 약속했는데, “대전협이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40시간제 도입 등 구체적인 내용이다. 정부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지금 하면 되는 데 안 하고 있다. 구체적 계획 없이 그저 ‘믿어 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전공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란 무엇을 뜻하나. “대전협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성명서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수련 환경 개선 등 많은 게 들어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냈다. 이 디테일에 대해선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2000명 증원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다. “정부가 증원 근거로 말한 보고서 3

개를 살펴봤을 때 추계 근거가 약하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AI)이나 기술 발달이 점점 진척된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증원이 이뤄지면 그만큼 전공의가 늘어나고, 그들을 싼값에 열심히 굴리는 것만 쉬워진다.”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다.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각자 사정에 달린 것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전공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채혜선 기자

## 검찰, 전공의에 철도파업 사례 적용 검토... 법조계 “실제 법 적용은 최후 보루 돼야”

(2006년 노조파업)

당시 대법 “출근안해도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 전공의 사직, 쟁의행위로 불지 판단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9000여 명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검찰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4일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

서 대한의사협회의(의협) 간부들에 이어 전공의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도 지난달 21일 의협 관계자 및 일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철도노조의 2006년 3월 1~4일 총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업 전날인 2006년 2월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 간 단체교

섭이 결렬된 후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됐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지시했다는 점에 대법원은 주목했다. 대법원은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된 때와 필수 유지업무에 해당할 때 쟁의행위를 제한한 옛 노동조합법을 철도노조가 위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코레일 측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특히 노조원들이 파업(직위)이 아니라 출근하지 않은(부작위) 것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으로 노

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라며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한다”고 인정했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돼 135억원 상당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하면서 철도노조 측은 약 70억원을 코레일에 배상해야 했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 5명은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와 폭력적인 수단이 수반되는 파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

장이다.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요컨대 집단사직이 사용자(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실제로 적용해 완력 싸움을 벌이는 건 여전히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수사는 이번 사건에서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일괄적 법 적용이 아닌 개별 케이스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정원·양수민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유재신 공인회계사**   **유종옥 종합보험**

2023 Return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TIN번호)신청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유종옥 종합보험

jaeshinyoocpa@gmail.com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임종석 “당 결정 수용” 잔류 선택… 문 전 대통령이 만류했나

(서울 중·성동갑 컷오프)

임 전 실장측 “밤새 탈당 생각 바뀌” 일각 “총선 이후 거냥한 행보” 분석 광주 출마선언 미뒀던 이낙연 회견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언급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한 문장을 올렸다. 민주당 전략공천 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임 전 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한 지 1주일 만이다. 그간 공천 배제에 반발하던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이낙연 새로

운미래 공동대표와 회동하며 “탈당 압박”(야권 인사)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선택은 잔류였다. 임 전 실장의 한 측근은 “(임 전 실장은) 탈당하지 않는다”며 “당분간 쉬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과 소통해온 한 의원은 “3일 밤까지 탈당할 생각이었는데 밤 사이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고, 당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3일 밤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 문제를 놓고 “최대

한 예우해야 한다” “당의 자산인데 이렇게까지 되는 게 안타깝다” 등의 의견이 나왔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창구를 자임했다고 한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4일 통화에서 “임 전 실장 얘기에 대해선 당분간 언급하지 않겠다. (탈당하지 않은 건) 스스로의 결심”이라고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도 뒤늦게 임 전 실장을 만나려고 여러 경로로 접촉했으나 연락이 닿지는 않은 거로 안다. 선대위원장 등을 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임 전 실장의 선택을 “총선 이후를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기도 한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후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당내 인사는 “결정적 고비에서 물러서는 건 리더로서 위상을 스스로 갱신하는 것”이라며 “신문의 구심이라는 임종석의 효용성은 끝났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을 것란 관측도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광주 시장과 만났다. 컷오프돼 탈당을 고심 중인 홍영표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 사실을 알리며 “문 전 대통령님께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셨다”고 썼다.

임 전 실장의 합류를 기대했던 새로

운미래는 당혹감을 표출했다. 임 전 실장과 회동하느라 3일로 예정됐던 광주 출마 선언을 미뒀던 이낙연 대표는 4일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에는 전혀 저와 통하지 않았다”며 향후 연락에 대해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라고 답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치르기로 결심했다”며 “지역구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이 떠나게 된 광주 서율이 출마지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고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없었고 총선에서 참패하면 정권 교체도 어렵다”며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성치원 기자



임종석

## 한동훈 ‘캐스팅보트’ 집중 공략 “충청 사랑 못받고 이긴 적 없어”

천안을 시작으로 청주 등 충청권 유세 모레부터 수원·성남 경기 남부권 찾아 입당 김영주 “이재명, 민주당 사당화시켜”

“선거에서 충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긴 적은 없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충청에서 먼저 지역일꾼들과 함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시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천안을 시작으로 5일엔 충북 청주, 7일 경기 수원, 8일 경기 성남과 용인 등을 찾는다. 지난 총선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완패한 지역들이다. 당 관계자는 “꼭 탈환해야 할 전략지역만 추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갈색 후드티 위에 항공 점퍼를 걸치고 천안 백석대에서 학생들과 만난 뒤 천안중앙시장을 찾았다. 그는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다. 충남에, 천안에 잘하겠다”고 말했다.

산토끼를 쫓는 발과 달리, 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집토끼를 겨냥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에 대해 “이척기 대표의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가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듣는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 TV토론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대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하자,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 지금의 거짓말은 다르다. 왜냐하면 곧바로 선거 거부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토론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김여준씨가 사회를 봐도 상관 없다. 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 붙은색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부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 전만규 기자

한편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의원평가 하위 20%’에 반발해 1일 민주당을 탈당한 지 사흘 만이다. 김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사당화(私黨化)’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한 그는 “국민의 삶이 장시간 노동으로 피폐해지고 있을 당시 국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수정을 시도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끈다면 앞장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된 3차 경선에선 손범규 전 아나운서(인천 남동갑), 유나준 전 해병대 사령관(경기 남양주갑), 김동원 전 기자(충북 청주흥덕)가 승리했다.

김효성·김기정·이향훈 기자

## 이재명, 공천 내홍 돌파구 찾기 ‘노무현 사위’ 지역구 종로 유세

(곽상연 변호사)

이 대표 “공천 개혁은 갈등 따르기 마련” 당 지지율 하락세에 “균열만 크게 부각돼” 정치권 “현장 행보로 분위기 전환 시도”

‘비명횡사’ 논란과 이에 맞물린 당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38분간 작심 문답을 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흐르는 물에 소리가 나듯이 개혁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한 뒤 “분신(시도)까지 하고, 삭발까지 하는 국민의 힘 공천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반문했다.

지난 3일 장일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의 분신 시도, 지난달 23일 송숙희 전 사상구구청장 삭발 등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을 꼬집어낸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썩은 물 공천, 고인 물 공천이자 후안무치에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이라고 비난했다.

탈당 사태에 대해서 “3선 이상 의원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 60명 정도를 여론조사했는데,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이 18.8% 나온 분도 있다”며 “나와도 안 찍겠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분도 있는데, 탈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당의 힘으로 당선된 분들이 상대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으로 옮긴 이상민·김영주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저희의 부족함을 국민이 질책하는 것”이라면서도 “경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를 엄청난 갈등·균열인 양 확대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자동



4·10 총선 첫 지역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4일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연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이날 이 대표와 곽 후보가 함께 창신시장 방문해 식사하고 있다. [뉴시스]

응답전화(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9.1%)은 국민의힘(46.7%)에 7.6%p 차이로 밀렸다. 지난달 27~29일 한국갤럽(국민의힘 40%, 민주당 33%)과 마찬가지로 1년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창신시장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연 변호사를 거들었다.

이 대표는 “곽 변호사는 민주당의 맨 앞에서 승리를 견인할 선수”라고 추켜세웠다. 현장에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도 나왔다. 정치권에선 공천 내홍에 휩싸인 당내 상황의 출구를 찾기 위한 현장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야권 인사는 “인천 계양을에만 묶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부 행보에 나서 원외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대일 구도를 넘어서려는 의도도 있을 것”(야권 관계자)이라고 말했다.

손국화·이기람 기자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한 자리’와 ‘한자리’

똑같은 단어처럼 보여도 경우에 따라 붙여 쓰거나 띄어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뛰어쓰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대표적인 것이 ‘한’이다. “여기 한 자리가 남았으니 얼른 타세요”와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에서는 ‘한 자리/한자리’로 각각 띄어쓰기를 달리 해야 한다. 왜 그럴까?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자리’와 같이 ‘한’과 ‘자리’를 띄어 쓰면 ‘하나의 자리’라는 뜻이 된다. 앞 예문은 자리가 ‘1석’ 남았다는 의미다. 즉 단 하나의 자리만 있다는 뜻이다. ‘한자리’와 같이 붙여 쓰면 ‘같은 자리’라는 의미를 지닌 별개의 단어가 된다. 그러니까 두번째 예문은 “모처럼 가족이 같은 자리에 모였다”는 뜻이 된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와 “그는 며칠 전 마주쳤던 사람과 한사람이었다”에서 ‘한 사람’과 ‘한사람’도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 사람’은 ‘1명’을 뜻하며, ‘한사람’은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한 자리/한자리’와 ‘한 사람/한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 붙여 써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한’을 붙여 쓰는 경우 ‘같은’이라는 의미가 덧붙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한’이 ‘같은’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붙여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늘어나는 ‘쇼트 폼 콘텐츠’ 중독자



정하은  
경제부 기자

대표적 소셜미디어(SNS) 업체인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는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메타가 중독성 강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말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린다 야카리노 X CEO, 저우서우쯔 틱톡 CEO 등 주요 5개 SNS기업 대표들이 연방의회에 출석해 줄줄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상원 법사위가 연 온라인 아동학대 피해 방지 청문회장에서였다.

최근 MZ세대(1980년~2010년대 출생)의 쇼트 폼(short-form) 콘텐츠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무한 재생되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짧고 간결한 영상 플랫폼의 인기가 급등하면서 ‘디지털 마약’으로까지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쇼트 폼 콘텐츠는 1분 내외의 짧은 길이로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 패션, 요리법 등을 소개한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어 빠른 변화를 선호하는 MZ세대의 특성에 잘 맞는다는 분석이다.

또한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해 끊임없이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몰입은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고,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 업무 수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의료 데이터 관리 회사 ‘하모니 헬스케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 사이 출생자)는 다른 세대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 중독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6시간 5분으로 밀레니얼(4시간 36분), X세대(4시간 9분), 베이비부머(3시간 31분)에 비해 훨씬 길다. 스마트폰 사용의 중독성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Z세대가 56%로 가장 높다. 반면 밀레니얼은 48%, X세대는 44%, 베이비부머는 29%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심리학 학술지인 ‘프론티어스인피지컬로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쇼트 폼 비디오 중독은 대학생들의 학업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트 폼 비디오 시청 시간이 늘수록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주의력 조절 능력도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는

Z세대의 평균 집중력 지속 시간은 8초로 밀레니얼 세대보다 4초나 짧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틱톡 이용자 가운데 MZ세대 비율은 78.4%나 됐다. 이어 인스타그램(71.4%), X(전 트위터)(65.3%), 유튜브(50.6%) 순으로 MZ세대 이용자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쇼트 폼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속한 정보 유통과 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바람직한 쇼트 폼 콘텐츠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 활용 방안 모색과 중독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노력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 개인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우선 기업들은 수익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독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관련 법규 정비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도 알림 삭제 등을 통해 스스로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운동, 독서 등 다른 취미활동을 통해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세로 자리 잡은 쇼트 폼 콘텐츠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중독’은 피해야 할 점이다.

열린광장

3월의 노랫소리



윤경중  
목회학박사  
연목회 창설위원

3월이 되면 들던 강남 갔던 제비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이젠 들을 수 없으니 안타깝다. ‘3월은 사자처럼 다가왔다가 양처럼 사라진다(March comes in like a lion and goes out like a lamb)’는 말이 있다.

3월이 처음엔 폭풍우처럼 세찬 바람을 안고 다가오지만 나중엔 온화한 바람처럼 따뜻해진다 는 뜻이다.

옛 로마 달력에서 3월은 첫째 달이었고, 그 이름은 마르티우스(Martius)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원전 46년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달력을 고쳐 ‘January’를 1월로 만들고 ‘March’를 셋째 달로 만들었다고 한다.

3월에는 미국에도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다. 1836년 3월 2일 텍사스 주가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1867년 3월1일 네브래스카 주가 미국의 37번째 주로 승인받았다. 1878년 3월 30일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15조가 공표된 날이다.

또 1917년 3월 31일 미국 정부는 덴마크로부터 서인도제도의 버진아일랜드를 구매했다. 1918년 3월 31에는 일광절약시간(DST)을 시작했다. 올해는 3월10일부터 일광절약시간이 시작된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12일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3년 뒤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군 지원을 위해 미군에 참전명령을 내렸다.

조각가 아우구스투스 고든이 1848년 3월1일 출생했고, 미국의 22, 23대 대통령을 역임한 그로버 클레블랜드는 1837년 3월 18일 태어났다. 그리고 여성 최초로 연방 대법관에 오른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출생일은 1930년 3월 26일이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유명 화가 미켈란젤로가 1475년 3월 6일, 교향악곡 ‘볼레로’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1875년 3월 7일에 태어났다.

또 E.M.F. (기전력)와 전류의 관계를 설정한 ‘옴의 법칙’의 물리학자 게오르크 옴이 1787년 3월 6일에 독일에서 출생했다.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일 무렵 정치인 패트릭 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그는 “(…)여러분들은 평화 또 평화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란 없습니다…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고통과 노예 같은 아픔을 대가로 생명과 평화를 원합니까? 전 능하신 하나님! 나는 외칩니다. 자유를 주세요, 아니면 죽음을!”(Almighty God! …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이라고 외쳤다.

3월의 꽃은 제비꽃이니 강남 갔던 제비가 제비꽃을 찾아 돌아오는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을 런지…

**SK PEST Management LLC**

**BED BUG**    more ▶ [www.sk-pest.com](http://www.sk-pest.com)

**빈대퇴치! ELIMINATE!**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 skpmva@gmail.com

맞춤 용자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iversal)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March 5, 2024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사회 문화적 자본’ 부족... 지원 찾아보아야

### ‘1세대 대학생’ 의 모든 것

대입 지원서를 쓰면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바로 지원자가 ‘1세대 대학생’(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이냐고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 중 처음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냐는 것이다. 한국 같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오히려 선발을 위한 고려 사항 중 하나다. 지원자 당사자도 매우 보람 있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평소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자녀의 ‘1세대 대학생’의 의미를 알아봤다.

한인 사회도 1세대들이 은퇴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자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지 않은 가장이 꾸리는 가치가 아직도 많다. 이런 가치는 미국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한 계속 될 것이다.

이민 가정에서 처음 교육과 관련해 힘든 때는 어린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낼 때다. 대부분의 한인 가정에서는 다른 이민 가정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자녀를 한국어로 훈육한다. 영어가 유창해서 갓난아기부터 영어로 가르치는 가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민 가정은 자기 모국어로 자녀를 기른다. 심지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 출신들도 모국어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학교에 입학해서야 비로소 영어를 습득하게 한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영어를 습득하는 모습을 보고 대개의 부모는 대견해 하지만 실제 어린 자녀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나마 비슷한 모습의 한인 아이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



대학 입장에서 1세대 대학생은 부모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비나 장학금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지투데이]

### 이민 가정 중 첫 대학생에 해당 형제 많아도 모두 첫 세대 속해 대학 적응위한 프로그램 제공도

겠지만 대부분 최소 한 달간은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 생활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집에 와서는 힘들며 고생하며 이민 생활을 시작한 부모들의 고생을 생각해서 울지 않고 굶굶하게 이겨내는 것이 이민자 가정의 자녀다. 그냥 쉽게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 되고 쉽게 의대에 들어가고 법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영어를 몰라서 우는 시기와는 수준이 다르지만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입 지원서부터 이들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다. 대입에 자신감을 주는 지

는 확실하게 알려준 바는 없다.

연구에 따르면 1세대 대학생들도 대입 지원부터 졸업까지 과정 각 단계에서 지원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회 문화적 자본’이 부족하다.

### ▶누가 1세대 대학생인가

연방 프로그램 및 펠그랜트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1세대 정의는 1965년 고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고등 교육을 받은 학생이다. 또한 유엔과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모가 미국 이외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에게도 이 정의를 확장해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 대학에서는 부모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복경대, 홍익대를 나왔어도 그 자녀는 1세

대 대학생으로 분류된다. 또한 혼돈이 되는 사항이 바로 언니나 오빠가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갔을 경우, 동생이 첫 대학생(first student)이라는 단어에 걸려 아니라고 착각하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세대 출신 어머니와 고려대 출신 아버지가 미국에서 낳은 3남매가 있다면 그들 3명은 모두 ‘1세대 대학생’이다. 첫째가 ‘1세대 대학생’을 써먹었기에 둘째부터는 ‘첫번째’(first)가 아니므로 ‘1세대 대학생’에 체크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러 수 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대’가 중요한 것이다. 부모의 영향력이나 가정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대학생 오빠 언니는 집에 남은 동생의 가정 교육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정의를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러가지 기회를 모를 수 있다. 심지어 대학에서 1세대 커뮤니티에 가입하라는 초대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1세대 대학생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입 지원자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확인해야 하며,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입학 사정관에게 문의하여 1세대 학생 기회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맞은 대학 찾기

1세대 또는 저소득 배경의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학교 및 기타 직업 경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세대 학생들이 고등 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 검색에 대해 도움을 주는 손길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한인들은 당연히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민 가정도 많다.

장병희 기자  
▶ 2면 ‘1세대 대학생’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hello! Parents** 아이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양육자도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으로 다가올 시대에 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보육에서 대입까지, 학습법에서 아이 건강 챙기기까지, 양육 노하우를 전합니다. 이번엔 사회성 발달 장애 중 하나인 '자폐 스펙트럼'의 핵심 신호를 바로 찾아내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천근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자폐와 ADHD의 행동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보인다"고 했다. 김현동 기자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1 "SKY 가려면 초1 '이것' 해라" 서울대 스타 강사의 공부법 | 2 국영수 1등 이 학원 다녔다...엄마들 쉬쉬한 '대치동 학원' | 3 감기에 '좋은 열, 나쁜 열' 있다... "이때는 해열제 먹이지 마라"

# 엄마 화난 표정... ADHD 아이는 알지만 자폐는 몰라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영우는 다섯 살이 돼서야 말이 트였다. 아버지가 아이의 자폐를 알아챈 것도 그 무렵이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했다면 자폐를 막을 수 있었을까?

소아·청소년 자폐 권위자로 꼽히는 천근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예방하기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해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장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폐는 전두엽 등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인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예방법도 없다. 천 교수가 양육자들에게 당부하는 건 바로 "핵심 신호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 핵심 신호는 대체 뭘까? 만약 신호를 포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헬로 페어런츠(hello!Parents)가 지난달 30일 천 교수를 직접 만났다.

◆자폐와 ADHD, 여기서 갈린다="자폐에서 비롯된 행동을 '산만하다'고 해석하기 쉽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될 수도 있어 주의

가 필요하다" -산만함이 어떻게 다른가. "수업 시간에 산만한 아이는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된다. 반면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른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 진료실에서 갑자기 제 무릎에 앉거나 위험한 물건을 못 만지게 하면 "싫어. 나빠"라며 소리를 지른다. 겉으로 보기에 둘 다 산만해 보이지만 행동의 원인이 다르다."

-어떻게 구별하나. "특히 영유아 때 아이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됐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주 양육자의 표정과 주변 정보를 참조해 상황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분위기가 바가며 행동하는 것이다. 단순히 ADHD로 생각 말고, 영아 때 상호작용은 잘했는지, 한 가지 특이한 거에만 꽂혔던 적은 없는지 등을 떠올려야 한다. 걷기 시작한 아이는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지려다가도 엄마 표정을 살핀다. 이때 엄마가 괜찮다는 표정이면 만지고, 찡그리면 멈춘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

## 천근아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교수

"분위기 살펴 가면서 행동하라" 자폐아가 가장 어려워하는 말 '사회성 관장' 전두엽 기능 저하 공감력 떨어지고 같은 말 반복해



2022년 ENA 방영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배우 박은빈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했다. [ENA 캡처]

이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시도한다. "안돼!"라고 주의를 줘도 멈추지 않는다."

◆언어 지연보다 어휘 반복 살펴라 = "한두 개의 증상만으로 자폐라고 볼 수 없다. 증상을 세심하게 살펴봐 특히 말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

-말의 내용이란. "말이 늦다고 다 자폐는 아니다. 제 때 말이 트였어도 자폐인 경우도 많다. 자폐는 제한된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선명하다. 상황과 상관없는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똑같은 걸 여러 번 묻거나, 책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읊는 등의 경우다."

-지능이 높아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오로지 한 주제에만 꽂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만 꽂히니 대화가 끊기고 소통이 힘들다. 공감과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A가 인형을 바꾸기에 넣고 자리를 뜬 사이 B가 그걸 상자로 옮겼다. 그 이후 A가 돌아왔다. A는 어디에서 인형을 찾으려고 할까? 7세 이상 정상 발달 아동이라면 바꾸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85% 이상은 '상자'

라고 말한다. 인형이 상자로 옮겨진 걸 A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초기 대응, 집에서 시작해라="치료 센터는 36개월 이후 적극적으로 다니라고 권한다. 그 전까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집에서 사회적 자극과 행동교정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다."

-집에서 뭘 할 수 있나. "놀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웃어 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 자극이다. 젤리를 줄 때 소리를 지르고 떼서 안 준다. "젤리 주세요"라고 말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문제 행동을 하면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완치는 가능한가. "안타깝지만, 자폐에 완치란 없다. 최대한 증상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사회적 자극을 주면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우도 많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천 교수는 "양육자의 죄책감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했다. 이민정 기자

▶1년 '1세대 대학생'에서 이어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커뮤니티의 경우, 저소득층 1세대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등 교육의 중요성을 모를 수 있지만 한인들의 경우에는 모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처럼 대학 교육이 의무 교육처럼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학비가 부족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없다. 특히 1세대 대학생들

은 1세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지원과 캠퍼스 내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희망하는 대학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도 지원하는지 알고 대입 지원서를 쓰는 것이 좋다.

## ▶대학 학비 조달

대학 학비 조달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특히 1세대 지원자들에게는 혼란스럽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1세대 학생들은 대학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1세대 학생은 등록금 및 기타 생활비 외에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장학금과 1세대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장학금도 찾아볼 수 있다.

## ▶서머 브리지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2~4주 동안 진행되는 여름 브리지 프로그램은 1

세대 학생과 가족이 1학년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을 심층 오리엔테이션에 초대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학업 조언을 제공하고, 여름 강좌를 제공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1세대 학생들을 비슷한 배경을 가진 교수진이나 상급생들과 연결해준다. 신입생은 대학이나 캠퍼스 전체의 1세대 학생 그룹과 연결하고 사교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데 도움을 준다. 1세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학생 단체, 동아리 등 다른 동호회를 찾아 보는 게 좋다.

캠퍼스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1세대 학생들은 다른 많은 학생도 대학에 입학할 때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학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곳이고 모두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 장병희 기자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 중학교 품은 초등학교 ... 121년 된 일본 학교 살린 비결

(도쿄 히노학교)

## 일본의 초·중학교 통합 실험

2001년 폐교 위기 몰린 히노소학교 인근 중학교와 합쳐 '9년' 통합교육 입학생 8명서 전교생 958명으로 한국, 법적 제약 많아 걸음마 단계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빌딩 사이에 위치한 히노학교(日野学園)에서는 입학식 때마다 특별한 장면이 연출된다. 최고참인 9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의 손을 이끌고 행사가 열리는 강당으로 들어오는 일이다. 2006년부터 초·중학교를 통합해 9년제로 운영하면서 생긴 전통이다.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히노학교 입학식. 9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온다. 초·중학교를 통합해 9년제로 운영하면서 생긴 전통이다. [사진 시나가와구 홈페이지]

시나가와구 소식지는 “조금 큰 교복을 입고 긴장한 신입생과 이들을 배려하는 9학년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묘사했다. 졸업식 때는 9학년 학생들이 일렬로 서 있는 1~2학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한다. 히노학교의 전신은 1903년 개교한 제2히노소학교(초등학교)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쿄의 초등학교지만, 저출생과 도심 공동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 2001년엔 입학생이 8명까지 떨어

어지며 ‘폐교 위기’에 놓였다.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학교와 통합은 불가피했다. 히노소학교는 인근 초등학교 대신 1947년에 개교한 히노중학교와 합치는 실험을 했다. 초·중 9년을 통합해 운영하되, 초등 6년, 중학 3년을 나누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1~4학년은 ‘즐거워 영어’를, 5~9학년은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목표로 가르친다. 4+3+2학년으로 나뉘는 과정도 있다.

그 결과 히노학교의 재학생은 2022년 기준 958명으로 늘었다. 생존을 고민하던 100년 학교가 ‘1000명 학교’로 살아남았다. 일본의 100년 학교들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 쓰나미에 휩쓸리면서 줄줄이 폐교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 경제가 호황이던 1960년 1259만680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버블경제가 붕괴되며 2000년 736만6079명으로 40년 만에 60% 수준으로 줄었다.

## 일본 초등학생 수 얼마나 줄었나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자 일본은 학교 폐합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그중 하나가 초·중 교육 통합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초중 의무교육 학교 설치’ 프로젝트다. 단순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건물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9년간 일관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유형을 만들었다. 그 결과 2016년 22개였던 초중 의무교육 학교는 2023년 207개까지 증가했

다. 같은 기간 재학생 수도 1만2702명에서 7만6045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학교당 학생 수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367명에 이른다. 초·중 통합 학교 모델이 일본 내에서 안착한 건 학생·학부모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히노학교의 경우 활발한 학년 간 교류를 통해 통합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6학년생이 1학년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교가를 알려 주거나, 9학년생이 1학년생과 점심때 놀아주는 ‘형제 학년’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9학년생이 5학년생 공부를 가르쳐주는 ‘썸머스쿨’도 인기다. 히노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서로 돕다 보니 학교생활에 적응이 빠르다”, “5학년년부터 중학생과 같은 학습 형태가 되기 때문에 초·중학교 사이 단절이 적다”고 했다. 일본은 통합뿐 아니라 학교 개방을 통해 100년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현행법상 초등교원이 중학생을 가르칠 수 없고, 그 반대도 안 되는 등 법적 제약이 많아 ‘통합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후연·서지원 기자

## 의학오디세이

### 의사의 글쓰기

보잘것없는 글로서 실명 칼럼을 쓰는 처지에 그녀의 존재는 민망하다. 모든 미디어와 만남을 거부하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오직 작품으로만, 필명으로만 드러내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엘레나 페란테가 그렇다. 그녀의 책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의 속 강렬한 문장, “글쓰기는 과거의 모든 글을 정복하고, 서서히 그 엄청난 자산을 쓰는 법을 배우아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이들이 쓴 것을 취합해 자아의 틀 안에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 역사 속 과정이 글쓰기라는 것이다. 그녀의 지혜가 지극히 온당한 이유는 모든 글에는 인류 문명의 기나긴 역사가 나이테처럼 스며있기 때문이다. 독서가 글쓰기의 습직한 밑천인 이유이다. 아픈 환자를 대하며 체득한 진실 중에는 언어의 체온이 높을수록 환자와의 교감은 수월하다는 것이다.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는 언어

는 통증과 좌절을 포용하고 치료의 예후도 좋다. 의사로서 글쓰기의 고된 노동은 감내하게 된 배경에는 개츠버의 사려 깊은 미소를 묘사한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의 따뜻한 문장이 출발점이었다. 그의 배려 깊은 글을 환자와의 대면에서 의사의 언어로 체화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란테의 조언대로 문명의 기록을 부단하게 살피려야 한다. 쉽표 없이 가파른 호흡의 의료현장 속에 쉽지 않은 일이다. 피츠제럴드에게서 문명의 지혜와 영감을 얻고 조지 오웰에게 현실 지식의 힘을 느꼈으며 김훈의 1990년대 문장 안에서 매혹을 느낀 세대의 한계는 분명하다. 문학적 문어체의 세계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그러나 정신과 육체 사이의 언문일치가 이뤄진 세계 속에서만이 글쓰기의 온전한 채비가 이뤄진다는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의사만큼 글쓰기

에 최적화된 노동조건은 흔치 않을 듯 싶다. 생과 사가 교차하는 의료현장의 풍경이 인류의 역사이며 통증 앞에 희망을 갈구하는 환자와의 대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인간 존엄의 역사이니 말이다. 의사만큼 고귀한 생명의 최전선을 기록하는 사관이 있을까 싶다. 따지고 보면 의사의 글쓰기 가치는 글로써 유명해지기보다 유일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유일하다는 건 다양성과 희소성 측면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의미일 테니 말이다. 의사로서의 삶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글의 주류를 이루더라도 아픈 환자를 위로하듯 삶을 위로하고 현재의 우리 삶과 태도에 맞는 생명에 대한 고귀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사의 글쓰기는 매우 효용적이다. 삶은 의미는 거창한 담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마주하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와 친절, 고통의 교감, 그리고 생명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놓지 않는 진심 어린 관계 맺음에서 시작된다. 글쓰기를 통해 그 의미를 자각할 수 있나 이보다가 성비 좋은 노동이 어디 있을까 싶다. 거기에 더해 타인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의사의 글쓰기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일상의 루틴이 있다. 그러나 의사의 일상은 변화무쌍하다. 예기치 않은 순간과 매일같이 당혹스럽게 마주한다. 사실 글쓰기는 어디서든 멈춤의 순간에 생각을 기록한 후 발효 식품처럼 숙성했다 쓴다. 루틴이 있다는 건 글쓰기의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기록할 여력도 숙성할 시간도 없다는 건 글쓰기의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그 공고한 틈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의 글쓰기가 당위성에 반해 고되다는 변명이라 해두자.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랬다. 의사의 글쓰기 동력은 자가면역력이다. 외부로부터 얻은 마음의 상처에 굴하지 않는 태도이다. 의료현장에서

부지불식간에 생겨난 흉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이다. 그러다 보면 내면의 힘은 단단해지고 반듯한 의료 철학으로 의사와 환자의 교감을 얻기 위한 지혜를 글로 기록할 힘이 생긴다. 니코즈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 힘의 원동력이었다. 의사로서의 좌표를 확인해준 글이었다. 이념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신에 집중하며 불합리한 상황에 당당히 맞서라고 말하는 조르바의 삶은 의료 현장에서 질곡의 시간을 헤쳐 온 담대한 위로였으며 환자에 대한 애정의 바탕이었다. 카잔차키스가 힘주어 말했던 “낮은 세계는 확실하고 구체적이다.” 그것은 박제된 윤리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항변이었다. 변하지 않은 가치가 있을 것인가. 변이하는 바이러스를 대하는 현대 의학의 경직성은 왜 비판받지 못하는가. 의술이 권위적이지 않아야 할 이러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의사의 글쓰기만큼 유요한 방식은 없다. 안태현 의학박사·이비인후과 전문의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J&B ESSAY CONSULTING, LLC**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세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 GREEN**: Essays for Kids (Grades 5-8)
- VIOLET**: Boarding Admissions (Grade 8)
- BLUE**: Essay Contests (Grades 8-11)
- ORANGE**: Journals (Grades 9-11)
- BROWN**: HYPs Portfolios (Grades 10-11)
- RED**: College Admissions (Grade 12)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필드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리스버그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670,000** **\$785,000** **\$800,000** **COMING SOON** **COMING SOON**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  
 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김경아**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연방정부 Loan 신청 절차

대학 합격 통지를 받으면서 재정 보조 패키지를 받게 되는데, 각 학교에서 보내온 재정 보조 패키지를 잘 분석해서 입학할 대학을 결정하고 나면 꼭 해주어야 할 일이 있다.

재정보조 패키지를 통해 제시된 연방정부 Loan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대학생들도 해당된다. 물론 Loan 없이 무상보조로 모든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이나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Loan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안내를 드린 바 있고, 이번에는 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으로 부터 받은 재정보조내역서를 검토해 보고 용자를 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학교에서 오퍼한 그 용자에 대해 수락할 것이라는 의사를 학교 측에 알려야 한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의 학생이나 부모의 Loan을 제시 받았지만 이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경

우도 있고 그 용자액을 줄여 신청하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해당 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처음 재정보조내역서를 확인했던 곳에서 제시되어 있는 용자액을 수락하거나 본인들이 희망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연방정부의 학생 Loan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용자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www.studentloans.gov 에 접속한 후 왼쪽 상단의 'Sign In'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FSA ID&PW 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이를 입력하면 Loan을 신청할 수 있는 Main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용자신청시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것은 Master Promissory Note(이하 MPN)의 작성과 Loan Counseling이다. MPN 작성은 이동된 화면의 왼쪽 하단의 Master Promissory Note의 Complete MPN 을 클릭해 이동하면 본인이 받고자 하는 Loan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때 Subsidized/Unsubsidized 를 선택하면 4단계에 걸쳐 MPN 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줄리 김  
탑에듀피아 대표



되어 있다. 첫단계는 용자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진학할 학교의 이름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두번째 단계는 2명의 Reference(참고인) 정보를 입력 하도록 되어 있다. Reference는 말 그대로 '참고인' 정도의 의미이지 학생이 받는 Loan의 '보증인' 의미가 아님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2명의 Reference는 학생을 알고 있는 가족, 친척, 이웃 누구나가 해당될 수 있다. 단, 2명의 주소는 달라야 한다. 이때 필요한 Reference의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생과의 관계뿐이다. 세번째 단계에는 학생이 신청하는 용자에 대한 기간이나 조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Sign을 하게 되면 MPN 작성이 마무리 된다.

다음으로 해 주어야 할 Loan Counseling 은 한마디로 학생이 받는 Loan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풀어보면서 Loan에 관해 꼭 알아 있어야 할 내용들을 익히는 과정쯤

으로 이해하면 된다.

Loan Counseling 은 Loan 신청 Main 화면의 Master Promissory Note 아래쪽에 있는 Complete Loan Counseling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학부생인지 대학원생 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과 입학 학교의 선택이 있는 후 본격적인 퀴즈가 시작된다.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퀴즈 문제의 답을 선택하면 옳은 답인지 잘못된 답인지와 해설이 부연 설명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MPN과 Loan Counseling 을 신청 하게 되면 학기가 시작되어 학비를 내야 하는 시기에 대학의 학생 Account로 신청한 금액이 지급 되게 된다. 학교에서 오는 서류나 이메일에 "disburse" 되었다고 하는 용어가 그것이며 지급된 용액은 Tuition, 기숙사비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된다. Loan신청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 SAT 우수자, GPA보다 대학 학점 높아... "학생 능력 더 잘 평가" 다시 채택 증가

## 에듀 포스팅

하버드대 연구팀은 예일대 등 북동부 8개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을 더한 12개 최상위 명문대 아이비플러스에 2017~2022년 입학한 학생의 GPA, SAT 및 ACT 점수와 이들의 대학 학점 간 상관관계(correlation)를 조사했다.

그 결과 SAT에서 1600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은 1200점을 받았던 학생들보다 평균 약 0.43 높은 학점을 받았다. 반면 GPA 4.0 만점을 받은 학생과 3.2를 받은 학생의 대학 학점 차이는 0.10 미만이었다.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대학들은 과거와 달리 지원자들에게 SAT 성적을 필수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SAT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 평균 학점은 약 3.3~3.4였다. 반면 SAT 고득점자들의 학점 평균은 약 3.7이었다.

이 같은 경향성은 대학 졸업 후 성취에서도 확인됐다. 연구팀이 2010~2015년 12개 명문대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SAT 만점자의 약 45%는 유명 기업에 취업했다. SAT 1300점을 맞고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유명 기업 취업률은 30%에 못 미쳤다.

뉴욕타임스지는 7일 연구팀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전하며 'SAT 같은 표준시험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를 견어할 것'이란 일각의 선입견이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대학입학 사정에서 SAT 비중을 줄이면 명문 사립고 학생만 체험할 수 있는 각종 과외 활동이 더 부각돼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 ▶MIT "SAT, 공정·다양성에 도움"

교육전문 웹사이트 '베스트칼리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백인 학생의 SAT 평균은 1098점이었다. 흑인(926점)과 172점이나 차이가 난다. 이에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백인과 비백인 학생의 SAT 점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입학 때 SAT를 중시하면 비백인 학생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당수 대학들은 "SAT 점수가 학생들의 능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믿으면서도 대중 일각의 이 같은 반발이 두려워 'SAT 의무 제출' 등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MIT대학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 2021년에는 입학생의 SAT 점수를 의무 요구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 다시 SAT가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여 준다는 점을 고려해 점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다트머스대 SAT 요구 시작

다트머스 대학이 2025년 지원자들로부터 ACT 또는 SAT 점수를 요구하는 결정을 발표하며 표준화된 시험 요건을 다시 도입한다고 지난 2월 5일에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력 평가 시험 점수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덜 부유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고려한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트머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험 선택적인 정책으로 인해 시험 점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입학사정관들이 공정한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도 설명했다. 우선 학교 평점이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평가할 공정한 기준이 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공립 고등학교의 평균 졸업 평

점이 3.22에서 3.39로 오르는 등 고등학교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많은 학생들이 A를 받는 것이고 이는 모든 사람이 A를 받으면 실제로 누가 진정한 A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성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입시 에세이 역시 부모가 쉽게 썼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세이 역시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의 척도가 되기 어려우며 과외활동 이력서 역시 입학 컨설턴트가 작성한 열정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 한인 학생들은 확실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대학 학업의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SAT 공부를 거부하기보다는 더 잘 활용해야 한다.

새라 박 원장·시칼리지프렘

① 위싱턴 중앙일보

#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저렴한 비용

2.편리한 풀서비스

3.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 광신도와 정치가 만나면... 둔2, 세계에 보내는 경고

“‘터미네이터’ ‘스타워즈’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속편을 모두 뛰어넘었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둔: 파트2’(이하 ‘둔2’)에 대한 ‘포브스’ 평가다.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 평가는 100% 만점에 94%로, 3년전 1편(83%)을 능가했다. 한국에선 나흘간 누적 67만 관객(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을 동원하며 외화 흥행 1위에 올랐다.

한국영화를 포함하면 ‘파묘’(2일까지 누적 538만 관객)에 이어 2위지만, ‘둔2’ 영상·사운드를 최적화 관람할 수 있는 아이맥스·돌비관 등 특수관은 20만원대 암표 거래까지 등장했다.

‘오픈하이머’(2023)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둔2’에 대해 “‘스타워즈’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제국의 역습’ 편과 비견할 만하다”고 호평했지만, ‘스타워즈’ 같은 스페이스 오페라,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등 디스토피아적 미래상에 영감을 준 게 바로 ‘둔’ 원작이다.

미 해군 출신 기자이자 작가 프랭크 허버트(1920~1986)가 1965년 펴낸 원작 소설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SF 소설이다. 종교와 정치의 결합에 대한 경고를 담으며, SF 장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편견을 깬 걸작으로 꼽힌다. 10191년 미래 우주에서 황제로 인해 멸문한 귀족 가문 후계자 폴(티모시 샬라메)이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의 식민지인 사막 행성 ‘아라키스’의 메시아로 거듭나며 원주민 프레멘 반군과 힘을 합쳐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전편에서 어머니 제시카(레베카 퍼

거슨)와 도망친 폴은 2편에서 프레멘 부족 전사로 합류하며 ‘무앗답’이란 새 이름을 얻는다. 무앗답은 사막에서 스스로 물을 구하는 캥거루 쥐이자, 밤하늘 길잡이 북극성이란 뜻이다. 이성적인 북부 프레멘과 달리 남부 근본주의자들은 폴이 예언 속의 외계 예지자 ‘리산 알 가압’이자 구원자 ‘마디’라 믿고 숭배하게 된다.

또한 제국의 막후 실세인 종교 집단 ‘베네 게세리트’ 일원인 제시카는 아들 폴이 베네 게세리트가 90대에 걸친 유전자 교배로 얻고자 한 조원자 ‘퀴사츠 헤더락’이란 걸 증명하려 한다. 거대한 모래 벌레와 환각물질 ‘스파이스’가 공존하는 메마른 사막에서 북부 출신의 프레멘 전사이자 폴의 연인 차니(젠데이아)는 폴이 메시아이자 권력자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을 경계의 시선으로 지켜본다.

1편이 팬데믹 시기 전 세계 4억3480만 달러(약 5808억원) 흥행을 거두며 3편까지 연출권을 확보한 드니 빌뇌브

**둔: 파트2, 국내 67만 관객 돌파**  
“스타워즈 등 모든 속편 뛰어넘어”  
로튼토마토서 1편보다 높은 94%  
한국선 아이맥스·돌비 암표 거래도



1 영화 ‘둔’에서 사막 행성의 모래벌레는 침략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지만, 유목민 프레멘과 공생 관계로 그려진다. 2 ‘둔’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티모시 샬라메). 3 프레멘 전사 차니(젠데이아). [사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감독은 지난달 내한 간담회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 종교와 정치가 결합할 때 광신도 집단이 생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원작 속 경고의 메시지에 충실했다.”

허버트가 이를 강조한 후속 소설 『둔의 메시아』도 읽었다”면서 “결국 ‘둔’은 한 청년이 타고난 배경, 유전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나고 자란 캐나다 퀘벡은 1960년대까지 종교의 정치적 힘이 셧다. 제도와 종교의 분리를 꾀하는 청년들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고, 이런 경험이 영화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둔2’에서 폴은 “가진 게 없어서 공포를 무기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같은 대사의 토대가 된 원작의 풍부한 상상도 현실이 뿌리가 됐다. 허버트는 6년에 걸쳐 『둔』의 세계관을 구상하며 200권 넘는 책과 삶의 경험을 충동원했다.

신실한 가톨릭 신자 이모들에게서 베네 게세리트를, 러시아 제국에 저항한 야탑 반란군의 성전에서 프레멘 반란의 단초를 얻었다.

지배권 전쟁을 촉발하는 스파이스는 석유의 은유다. 『둔』 원작에서 제국의 권력에 항거한 폴의 가문이 신적인 숭배 대상이 되는 미래를 1985년 단편 ‘둔으로 가는 길’에서 냉소적으로 그리기도 했다. 영화에선 이런 주제가 3편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빌뇌브 감독은 ‘둔2’에서 원작에선 3년에 걸쳐 벌여졌던 폴의 메시아 등극 여정을 수개월로 단축하고, 연인 폴의 변화를 우려하는 차니를 원작보다 더 비중 있고 독립적인 캐릭터로 그렸다. 그는 최근 영국 영화잡지 ‘리틀 화이트 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둔3’은 1969년 나온 소설 『둔의 메시아』가 기반이 될 것”이라며 “‘둔’ 3부작을 만드는 건 영화감독을 꿈꾸 때부터의 오랜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 폭풍 드리블에 부활포 ‘에이스’ 손흥민 돌아왔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2·사진)이 ‘에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을 터뜨리는 ‘특급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토트넘은 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3-1로 역전승을 거뒀다. 승리 못지 않게 반가운 건 손흥민의 부활이었다. 2-1로 앞선 후반 43분 승리에 췌기를 박는 추가 골을 터뜨렸다. 새해 첫날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정규리그 12호 골을 기록한 이후 두 달여 만에 터뜨린 득점포였다.

상대 수비라인의 빈틈을 신속하게 파고든 손흥민은 브레넌 존슨의 스루패스를 받은 뒤 20m 가량 질주한 끝에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만들어냈고 침착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득점 직후 손흥민은 특유의 사진찍기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활짝 웃었다. 시즌 13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포에 다시 시동을 건 손흥민의 득점 순위는 6위로 올라갔다.

이날 경기는 아시아컵 이후 체력적·정신적 부담에 눌러 주춤했던 손흥민이 화려하게 부활한 무대였다. 다소 몸이 무거웠던 이전 경기와는 달리 움직임과 슈팅 등 모든 면에서 컨디션이 좋아진 모습이 었다. 손흥민은 후반 종료 직전 데인 스칼렛과 교체되기 전까지 슈팅 5회, 볼 터치 35회 등을 기록했다. 벤치로 향하는 에이스에게 토트넘 홈팬들은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팬 투표로 선정하는 경기 MVP(Man of the Match·MOM)에도 선정됐다. 58.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양 팀 출전 선수를 통틀어 가장 높

은 8.13점의 평점을 매겼다. 그러나 울버햄프턴의 공격수 황희찬(28·울버햄프턴)은 햄스트링(허벅지 뒤근육) 부상 탓에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해졌다.

게리 오닐 울버햄프턴 감독은 이날 뉴캐슬과의 원정경기 직후 “(햄스트링을 다친) 황희찬이 회복할 때까지 6주가 걸릴 것”이라며 “우리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톱클래스 공격수로 발돋움한 황희찬이지만,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혔다. 황희찬은 지난 2022년 카타르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햄스트링을 다쳐 조별리그 1·2차전에 결장했다. 송지훈 기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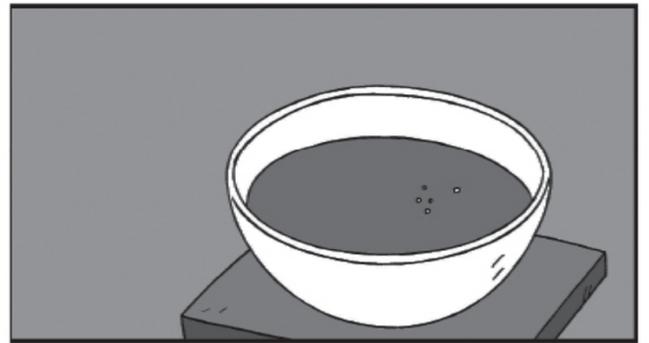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약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3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 풀/파트타임 가능
- ▶ 영어 가능하신 분
- ▶ 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환영
-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양생활안내 Classified

중양일보 2024년 3월 5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mailto: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선: [smartacct@solomonus.com](mailto: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mailto: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 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mailto: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mailto: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mailto: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mailto:ceo@toptravelusa.com)

탑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mailto: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mailto: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_tre@gmail.com](mailto:edk_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로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mailto: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mailto: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mailto: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mailto: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http://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mailto: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http://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mailto: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http://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mailto: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열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mailto: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mailto: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mailto: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mailto:luvacct1986@gmail.com)

유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 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mailto: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활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mailto: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mailto: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mailto: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mail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mailto: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mailto: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mailto: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할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mailto: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가능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mailto:admhappy.hr@gmail.com)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메디칼  
어시스턴트와 리셉션니스트 파트타임,  
풀타임을 구합니다. 703-505-0204  
[mmaturimed@gmail.com](mailto:mmaturimed@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mailto:admin1@lo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사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confidential.hr@gmail.com](mailto:confidential.hr@gmail.com)  
전화문의: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 410-480-5234/ 지역 : 엘리콧시티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풀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gofcfc@gmail.com](mailto:gofcfc@gmail.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치이주, 업무교육후)  
팬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mailto: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ang.sterling@gmail.com](mailto:s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mailto: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Cafe June 에서 풀 / 파트타임 샌드위치  
씨실분, 유무경험자, 엘리콧시티  
443-310-9247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mailto: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안 bbq  
서버, 헤드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츄레스 구함  
703-333-3400

MD 포토맥 지역 뉴일식당  
스키맨, 서버, 캐쉬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mailto: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첼트리 Cafe Moment  
급/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mailto:thecafemoment@gmail.com)

<아·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mailto: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mailto:KDLHJL@gmail.com)

##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mailto: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중앙일보**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파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 〈세탁/엘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 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 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기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파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 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on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 분, 성실한 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첼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발당청소하실분 파티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 분  
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우드브릿지타운하우스 \$2,500  
방3, 화장2,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각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볼레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장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장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장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장,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장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장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장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장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 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말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703-762-6759

###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 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포, 비흡연자  
703-400-4520

방1개 아파트 단거리 4/1-7/14일까지  
첼트리 롯데근방, 월 \$2,300(유포)  
240-787-0423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렌트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 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애난데일 싱글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방+거실+키친+Full Bath, 주차  
703-606-0700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1, 취사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1, 화장실1  
703-887-5173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포,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 사이  
비엔나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룸 메이트 구함 애난데일 (교통 편리)  
잠만 자실 분(남자), 인터넷 및 가구 완비  
703-560-6424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703-678-7833

NOVA, GMU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이노바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  
전체(입구 별도) 방2, 욕실2, 거실, 취사 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 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홈 2층  
마스터베드룸 스피셜분. 가구. 인터넷 완비,  
한아름 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 출입문 별도, 간단취사, 금연자  
571-243-6295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 202-258-6384

##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 부동산 매매

###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콘도 \$200,000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풀사이즈 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250,000  
방2, 화장실1, 리모델한 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703-477-3114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홈 \$399,900  
2019년 새단지 새집. 1 Car Garage, End Unit. 방3, 화장실 3/2, 탁트인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1, 화장실 1. 962s.f. Many Upgrades, New Appliances, New HV/AC. Tyson's Corner 가까이,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한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얄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매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매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매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룸, 세탁소 오피스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애난데일 마트인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 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임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세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교체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가격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구독신청 : 703-281-9660,1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 매매〉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박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8,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जू키 미싱 d11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 S 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 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 3스타 혼마 세트 2여행용 가방 1카트  
가격조정이능 문자요망  
240-500-0035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사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페임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 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정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쥘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 〈보석〉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클 파워 스티밍 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루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박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 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장 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테코트  
▶571-594-4080

집수리·가계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 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 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전기 공사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 용자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ger: How is Amanda doing in college?  
로저: 아만다는 대학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Jim: Well I was talking to her last night.  
짐: 글썸 어제 밤 나랑 얘기를 했거든.  
Roger: Is she doing all right?  
로저: 잘 지낸대?  
Jim: She wants to take some time off.  
짐: 휴학하고 싶어.  
Roger: You mean leave college?  
로저: 학교를 떠난다고?

Jim: Yes. She wants to run around Europe for a while.  
짐: 그래. 유럽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야.  
Roger: Really?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로저: 정말? 자네 생각은 어때?  
Jim: I'm all for it. But I do hope she goes back to college.  
짐: 난 찬성이야. 하지만 대학에 돌아가기를 바라긴 해.  
Roger: She'll be fine. She's got a good head on

her shoulders.  
로저: 잘 할 거야. 똑똑한 아이잖아.  
기억할만한 표현  
▶ take some time off: 학교나 직장 등을 잠시 쉬다 휴가를 받다  
"I took some time off from work to visit my family in New York."  
(전 휴가를 내서 뉴욕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 run around: (구어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  
"I'm going to run around at the mall for a while."  
(전 얼마동안 쇼핑몰을 돌아다닐래요.)  
▶ (one) has got a good head on (one's) shoulders: 정신이 똑바로 박히다 똑똑하다  
"Don't worry about him. He's got a good head on his shoulders."  
(그 사람 걱정은 마세요. 그 사람은 쓸데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임금의 딸 (5)개의 공으로 상대방을 맞히는 공놀이. 도지볼 (7)깊고 험하게 땅이 움푹 팬 곳. 헤어내기 어려운 나쁜 환경 (8)신호를 보내기 위해 불어서 소리를 내죠. 교통경찰과 경기 심판이 쓰죠 (9)도기를 굽던 가마의 터 (11)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발, 도가니 따위를 꼭고아서 만든 국. 뜨끈한 ~을 깎두기에 곁들여 먹으면서 막걸리 생각이 간절했다 (13)물건이 이루어진 모양새. 옷을 입은 땀이나 모양새. 같은 옷감도 마름질, 바느질, 그 밖에 다른 솜씨에 따라 ~가 다르다. □□리 (14)지표면이 평평하고 너른 들. 호남~ (15)조개 속에서 나오는 보석 (16)자극성(훈)이 있는 다섯 가지 채소류. 불가에서는 마늘 달래 무릇 김장과 실파를 말하는데, 음육을 불려일키는 음식이라고 하여 금식한다 (19)여러 사람이 모여 마구 먹고 즐기는 자리. 우선 먹고 보자는 향락주의적인 생각 (21)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설의 새 (23)정미 많고 감정이 풍부함 (24)달면 삼키고 쓰면 뱀을.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함 (26)기쁜 소식 (27)두부 찌꺼기

세로열쇠

(1)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에 쓰는 기구. ~상가 (2)얼매 따위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 그녀는 손목에 여러 개의 팔찌를 ~ 차고 있었다 (3)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4)문을 바르는 데 쓰는 얇은 종이 (5)고대 이집트에서 묘의 한 형식으로 사각추형으로 만든 왕이나 왕족의 무덤 (6)물, 술, 기름 등을 뜰 때에 쓰는 기구 (10)살내용 이동식 변기. 낫쇠나 양은, 사기 따위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다 (12)녹두묵에 고기볶음과 데친 미나리, 구운 김 등을 섞어 만든 묵무침. 조선 영조 때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의 음식상에 처음 올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13)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빈주머니. ~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성공한 것이 꿈만 같다 (17)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계 2900여 종의 언어 가운데 유네스코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18)노랫말 (20)아니꼬울 정도로 인색한 사람 (21)마음속으로는 간절하지만 감히 칭하지 못함. ~이인정 고소원이라 (22)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 (23)복이 많음 (25)경지나 주머니 따위로 이용하는 방

스도쿠

8	7		3	1		2		
9	2			5	8	6		
		5					7	
6		7	4					
	4				3	9	2	
		9			5			6
	9	3						
4	6				9			
	8	1						3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6	4	7	9	2	1	8	5
7	8	1	9	3	5	2	6	4
2	9	5	4	1	8	3	6	7
6	4	7	5	1	8	9	3	2
5	2	8	3	7	6	9	4	1
8	1	3	2	6	4	7	5	9
4	7	8	9	2	6	5	1	3
1	3	9	8	5	7	4	2	6
6	5	2	4	1	3	9	7	8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하숙·렌트

고급 노안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방고관비  
Income Limit (색선)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무경험자 가능  
San Jose지역, 가 55만  
(714)552-5714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요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Casino All Auto Program**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가능한  
간편한 프로그램  
고정 고수익

(702)773-2249

##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b>운영자금 용자</b> 간단하고 빠른 용자	<b>Line of credit</b>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b>기계장비론</b> 새것 & 중고 구입
<b>SBA 부동산 용자</b> 25년 상환, 적은 다운	<b>SBA 7(a) 용자</b> 10년 상환	<b>기계장비 담보 용자</b>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http://funding1234.com)

**기타 지역**

매매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http://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산삼음욕탕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야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야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http://papaaaa.com)

**Partial & Denture**

플타임, 초보자 환영  
N.캐롤라이나주 샬롯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mailto: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로 살면  
**천종산삼**

Up to 40%  
할인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특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mailto:gmba.admissions.ysb@yonsei.ac.kr)

부에나파크 천종산삼원

**봄맞이 특별세일**

**천종산삼**

소중한 분께 '명품산삼'을 선물하세요  
산삼에 대한 궁금증을 "산삼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명품 생산삼 최저가 세일**

마른삼 2박스구입시 1박스공짜!!

**특별세일!**

\$500 두 박스 구입시  
\$300 한 박스 공짜!!!  
\$200 (선착순 Only)  
\$100

**최상급 명품 생산삼 세일(선착순) \$2500 → \$1500**

상담문의 213 382 9191 | 562 400 0072 | 7342 Orangethorpe Ave. #A-102 Buena Park, CA 90621

천종산삼원  
정성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http://www.ilwoulusa.com)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침질방 효과 걱정없는 원적외선 방출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열선	물세탁 가능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	---------------	-----------	---------------------	---------------------	--------------------	--------	-----------------	----------------	-------------------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린 \$379 트윈 \$229   린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린 \$419 트윈 \$299   린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http://www.ilwoulusa.com)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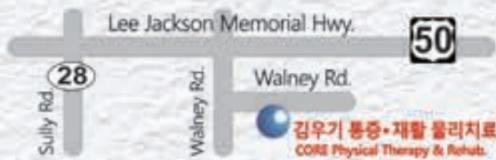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